

십 일 조	김갑수(정은희) 김병구(김신애) 김봉기(정미경) 김성진(박윤수) 김영길(금정숙) 김영호(마정희) 김용국(이희숙) 김원대(한현숙) 김윤성(이상애) 김인신(김정숙) 김종명(이혜자) 김종이(김호순) 김종진(신근선) 김진수(이은정) 김진한(김현순) 김호섭(안정남) 박기범(이경화) 박성원(김미현) 박종영(김은숙) 박현수(류순현) 박희준(노석순) 백요한(서주은) 서윤영(전정호) 서창대(지명은) 소병일(안희정) 송남영(윤영선) 심상근(김영희) 심중택(김영실) 연정웅(이복단) 오문식(조이리) 유병득(하영숙) 이경구(최난이) 이기주(심기향) 이종기(김미화) 이영진(박용애) 이화형(김은경) 이훈구(안미숙) 전필수(김재숙) 정연수(한보영) 정화순(박재범) 조성준(최미경) 한명철(박희순) 황상효(박상인) 황선민(서보혜) 강영주 권운서 김계순 김나현 김민정 김사랑 김순복 김용복 김정미 김정훈 김주영1 김태희 박귀복 박근복 박동숙 박옥희 박정숙 박하늘 배순애 백순현 백순현 서경자 서정미 서홍순 손춘심 송민영 신계희 신세이 안봉수 안비화 엄미리 오순전 유병문 이숙자 이순영 이정은 이창규 임영란 정주희 전복자 정명숙 정윤지 조순자 조옥제 조형준 자연옥 지영애 지화진 최 용 최용훈 최유정 최현주 한연홍 홍다정 황길자 황하람 무명2
-------	--

갑 사	강동현(박순아) 김병구(김신애) 김봉기(정미경) 김석철(이경순) 김세권(박미경) 김영욱(김명자) 김용국(이희숙) 김인신(김정숙) 김재영(이연주) 김종명(이혜자) 김종이(김호순) 김진한(김현순) 김호섭(안정남) 박기봉(최명희) 박병욱(정영선) 박성원(김미현) 박정수(손봉자) 박재인(최종자) 박찬근(박정은) 박현수(류순현) 박희준(노석순) 방인대(이정희) 서애정(김기수) 서창대(지명은) 소병일(안희정) 송남영(윤영선) 송남영(윤영선) 신명숙(구재모) 심중택(김영실) 안병광(김승태) 연정웅(이복단) 윤용수(라미수) 이경구(최난이) 이영진(박용애) 이화형(김은경) 이훈구(안미숙) 장득수(한영자) 장상기(김사진) 전필수(김재숙) 정경민(김미정) 정하경(문정희) 조성준(최미경) 주재훈(황미순) 최영상(김희영) 한동섭(곽경옥) 홍강표(이임자) 홍성운(고계선) 강영주 강옥주 김순복 김명자 김은배 김정미 김정자 김정훈 김주영5 김주원3 김하연 김하은 김행자 남미숙 당선미 문형주 문 흥 박동숙 박상익 박재영A 박은혜 박정숙 박지용 박지혜 반옥림 서경자 서은희 신계희 신민정 오순전 오행환 우정옥 유병문 유대남 유하은 이계옥 이규호 이상화 이상의 이숙자 이순영 이시은 이영순3 이우발 이윤종 이인식 이인자 이창규 임영란 임재현 장주희 전순석 전유미 정명숙 정민재 조민지 조인숙 조옥제 조윤순 지화진 최복근 하영래 한경옥 한선순 한 진 홍다선 홍민희 무명31
-----	---

선 교	김도하(박원미) 김봉기(정미경) 김용국(이희숙) 김종이(김호순) 김진한(김현순) 박현수(류순현) 박희준(노석순) 백요한(서주은) 서상윤(이상희) 서창대(지명은) 심중택(김영실) 연정웅(이복단) 이영진(박용애) 이화형(김은경) 전필수(김재숙) 조성준(최미경) 홍강표(이임자) 김계순 김정숙2 김정훈 박동숙 박정숙 신계희 오순전 이영순3 이창규 장주희 자연옥 기구영 무명1
-----	--

장 학	박현수(류순현) 심중택(김영실) 연정웅(이복단) 이영진(박용애) 이화형(김은경) 조성준(최미경) 김정훈 박정숙 최 민
-----	---

구 제	김종이(김호순) 박현수(류순현) 박희준(노석순) 방인대(이정희) 서상윤(이상희) 서창대(지명은) 심중택(김영실) 연정웅(이복단) 이영진(박용애) 이화형(김은경) 조성준(최미경) 홍강표(이임자) 김정훈 박옥희 박정숙 박희순 신계희 오순전 홍애란 무명1
-----	--

건 축	김바울(임미정) 박현수(류순현) 서상윤(이상희) 연정웅(이복단) 이영진(박용애) 김순복 김영희2 김정훈 박동숙 박정숙
-----	---

부할감사	곽태훈(김화경) 김갑수(정은희) 김왕순 박귀복 박영숙2 박요한 배순아 서정화 안비화 윤다자 이영숙 임경림 차예정 최현주 LUCY 무명4
------	--

구역 예 배 현 황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1	김현순1	5	17	신연자	5	33	서상윤	5	49	이혜자1	5	65	김진경	3
2	이만희	1	18	이임자	6	34	김혜정	3	50	이태숙	4	66	이은영1	5
3	박연숙	4	19	최외숙	4	35	이영순1	4	51	강경숙2	2	67	최유정	6
4	박원미	5	20	황미순	5	36	김승례	3	52	정미경	4	68	이점이	6
5	이재순1	4	21	신현숙	3	37	김은경1	2	53	김갑자	5	69	김옥진	4
6	정영희	4	22	이순례1	1	38	이복단	6	54	이영숙1	5	70	임혜숙	5
7	계혜정	3	23	서윤영	3	39	이선호	4	55	권희화	3	71	최봉덕	3
8	최미경	4	24	천명애	5	40	김은배	2	56	박동숙	4	72	양정자	4
9	안비화	4	25	김명숙1	3	41	곽경옥	3	57	김병원	8	73	윤현구	6
10	고종신	2	26	김정순1	4	42	강경숙1	2	58	김완숙	2	74	이영순2	8
11	이양자	4	27	조복실	3	43	박희순	4	59	김경복	3	75	이문순	4
12	장보균	8	28	김옥아	6	44	유윤수	6	60	양희선	3	76	김명자2	5
13	윤정희1	2	29	이남례	2	45	장정숙	4	61	이계옥	4	77	김영숙1	2
14	김용복	5	30	홍숙애	5	46	최명희	5	62	김명자1	5	78	윤영선	0
15	백인주	3	31	채은기	2	47	박용애	3	63	이연주	3	79	홍현숙	5
16	김희경	4	32	목영란	2	48	김동선	2	64	김미영	3	80	김연숙	3

지난 주일 통계(현장 출석)

장 년 : 901명	청 년 : 74명	교회학교 : 240명	헌 금 : 43,241,520
------------	-----------	-------------	------------------

선 파 협 력 교 회	송 박남호 최혜정 (인도네시아 / 5남전도회, 다비다) • 이사몬 (투르키예 / 3남전도회) • 박희원 (캐나다 / 4남전도회) • 박성진 (태국 / 로이스) • 임찬호 (미국 / 리브가)	• 강남휘 (인도 / 6남전도회) • 이몽도 (나미비아 / 2남전도회) • 박윤수 (페루 / 8남전도회) • 성시준 (미국 / 1남전도회)	• 류옥순 (W국 / 마리아) • 이규준 (캐나다 / 마르타) • 이정우 (미국 / 사라)	• 삼바울 (베트남 / 뒫) • 이정우 (미국 / 사라)
-------------	---	--	--	------------------------------------

사 일 행 제 교 인 천 회	반 한승현: 갑우나 (말레이시아) 기 한빛 (홍인 김병태 목사 / 리브가) 말씀의 샘 (안성 남이환 목사 / 마르타) 그말씀의 (수원 정일국 목사 / 로이스)	• 이삭 (남양주 박환용 목사 / 리브가) • 하이사랑교회 (광주 송대근 목사 / 마리아)
-----------------	---	---

강 원 충 칭	원 산계 (강릉 나종수 목사 / 9남전도회) 하나인 (황성 국균호 목사 / 1남전도회)	• 역둔 (삼척 김종현 목사 / 3남전도회) • 소망 (양구 하용관 목사 / 로이스)
---------	---	--

전 라	마치 (완주 이창수 목사 / 한나) 생지 (순천 박광현 목사 / 6남전도회) 홍승은혜 (영광 최태승 목사 / 한나)	• 동강중앙 (나주 유재경 목사 / 예스더) • 신기 (완도 정보영 목사 / 예스더)
-----	--	--

경 상	세간 (의령 김진홍 목사 / 4남전도회) 비진도 (통영 이주태 목사 / 뒫) 칠성 (청도 박상호 목사 / 마리아) 당향포 (고성 진철학 목사 / 2권사회) 이ભ (구미 이계훈 목사 / 마르타) 사순주님의 (양산 서동혁 목사 / 마리아)	• 가조반석 (거창 허경주 전도사 / 로이스) • 영광스러운 (거제 이선주 목사 / 5남전도회) • 부천 (문경 강형권 목사 / 4남전도회) • 생들 (의성 박종영 목사 / 다비다) • 구미 랍원 (구미 김재훈 목사 / 1권사회)
-----	--	--

제 주 해 외	신제주칼발리 (제주 김덕민 목사 / 뒫) 오슬랜드 조은 (뉴질랜드 나영규 목사 / 1권사회) 판크리올랍원 (캐나다 강승희 목사 / 3남전도회)	• 서울 (영등포 방길사한 목사 / 2권사회) • 진리와자유 (서울 양천 김만성 목사 / 사라)
---------	---	--

군 군 교 회 선 (군 목)	• 해물오전목사(남전도회) • 기도원(전통목사(남전도회) • 노도(갑사목사(남전도회)	• 광명(성안교회(남전도회) • 평택(한태종목사(4남전도회) • 안남(홍승호(새원목사(권사회) • 예비(이반석목사(리브가)
-----------------	---	---

기 관	교남소망의집(9남전도회) 성남보육원(9남전도회) • 국제기아대책기구(7남전도회) • 밀알선교회(6남전도회) • 결연경로당 • 한국기도연합회 • 더불어숲직업재활센터
-----	--

신 학교 교 도 스	• 인도네시아 STTP 신학교 • 남부교도스(찬양사역)
------------	-----------------------------------

목 사	김수환 ukc97@hanmail.net 김바울 kbu1826@gmail.com	김용국 kyk8214@naver.com 백요한 johnbaek28@gmail.com	오문식 oanstr@nate.com
전 도 사	서은희 ksjsbys@naver.com	김혜숙 gongone21@daum.net	최선미 sunmi9013@hanmail.net
교 육 목 사	김정훈 sfc-ants@hanmail.net		
교 도 전 도 사	박정숙 yearam1216@hanmail.net 이희선 ced3575@naver.com 김주홍 jurongkim@naver.com	김찬양 kimchanyang94@gmail.com 박솔민 solveen@naver.com	김도현 ehgusaortm@naver.com 김지희 podonamul981@naver.com
협 동 목 사	이항인 jsotlee92@naver.com		

장 로	[시무] 이규석 이화형 임경구 박희순 손중목 김세권 박기봉 하상환 김근석 김종명 김재동 김진배 김영희 반기섭 [원로] 마외출 엄규환 전용부 서상윤 방인대 강 호 [은퇴] 김석중 문 훈 유인만 서창대 정희남 서문용 박재인 연정웅 조용옥 조성준 이기춘 박정수 김삼숙 박규봉 이영진 이희홍 황상효 강 권 김봉기
-----	--

지 휘	김종명 김영호 이애자 김선하 박영선 김중진 김찬양
-----	-----------------------------

반 주	김영길 이병석 이환구 정하경 김윤정 김태희 김세미 황은정 허은빈 문혜민 이은영 김주원 배예민 김사론 김소리 정형지 조은길 유진솔 선 휘
-----	--

장 년 모 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오전 5:30	주 일 1부 예 배: (주) 오전 07:30	주 일 2부 예 배: (주) 오전 09:30	주 일 3부 예 배: (주) 오전 11:30
주 일 4부(청년)예 배: (주) 오후 01:30	수 요 저 녀 예 배: (수) 저녁 07:30	금 요 기 도 회: (금) 저녁 08:45	구 역 장 모 임: (금) 오전 09:40
람 월 성 경 강 좌: (목) 오전 10:00	늘 푸 른 학 교: (화) 오전 10:30	L . T . C: (화) 오전 10:00	

교 회 학 교

영아부: (주) 오전 11:30 영아부실	유아부: (주) 오전 11:30 유아부실	유치부: (주) 오전 11:30 유치부실
유년부: (주) 오전 11:30 유년부실	초등부: (주) 오전 11:30 초등부실	소망부: (주) 오전 09:30 소망부실
중등부: (주) 오전 11:00 중등부실	고등부: (주) 오전 11:00 고등부실	

예수님의 승리에서 배우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사건은 성도로 하여금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고, 고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생성합니다.

1. 이 들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첫 시험은 들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에 따라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사단의 교묘한 영적인 시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망각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박하시며(마4:4) 환경에서 비롯된 그 무엇도 신앙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인류의 대표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2. 뛰어내리라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성전에서 임할 것이라는 유대주의 메시아사상을 성취시키는 행동입니다(말 3:1).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3. 내게 앞도려 경배하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것과 같은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굳이 십자가의 좁고 험악한 길을 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단의 타협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제시한 쉬운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어 함께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